

우수상

공직부문 | 김준길



그 혼란 말
'바르게 살자'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나갔다. 하루 내내 몰두하여 거의 마무리 짓고 오후 여섯시 경 사무실을 나오려는데, 신 전후 정도로 보이는 내 또래 남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남자의 낯빛은 적잖이 수척해보였고 입성 또한 꽤나 초라했다.

“저, 상담 좀 하려고 왔는데요.”

“아 네, 앉으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그게... 제 아들이...휴우”

남자는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한숨부터 내쉬었다.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일단 이 커피 한 잔 드시고요.”

상담자의 마음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의 첫 번째였다. 남자는 한 몇 분 숨을 고르다가 싶더니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남자가 말한 아들은 남자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다. 즉, 중국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바로 그 여자가 데려온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남자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인 것이다. 그런데도 남자의 말 속에선 친아들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분히 드러났다.

아무튼 아들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잡혀 있다고 했다. 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온 것이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나는 남자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두루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남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들의 형량이 어느 정도 감량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변호사 수임료는 대체 얼마나 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이기에 이도 명확히 말 해 주어야 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사무장 입장에서야 가능한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일수록 반가운 법이다.

“제가 우리 아들 나중에 결혼하면 아파트라도 하나 전세로 얻어주려고 5천만 원을 모아두었어요.”

지갑에서 꺼내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하는 이 남자의 말에 가슴이 대번 뭉클해지더니 나도 모르게 수임료를 몇 백이나 깎아 말해버렸다. 남자는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며 아내와 상의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하고선 총총 사라졌다. 남자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친아들도 아닌데 어찌 저리 정성과 진심을 다 할 수 있을까, 아들을 둘이나 둔 친아빠인 나보다 백 배, 아니 천 배나 더 아빠다운 아빠가 아닌가. 그날 밤 내내 관절마다 욱신욱신 통증이 일었다.

경찰시험에 합격 하고 순경이 되어 파출소로 첫 출근을 했을 때, 어머니는 사흘들이 동네방네 자식사랑을 하러 다니셨고, 결혼을 하여 연이어 아들 둘을 낳았을 때도 어머니는 열흘들이 사람마다 붙들고 손자 사랑을 하셨다. 그래도 어머니는 한사코 내 사는 집에 오지를 않으셨다.

“내가 가면 며느리 고생만 시킨다. 니도 순사일 한다고 바쁜데 엄마가 가서 괜히 방해하면 어디 쓰것나. 내는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저 느그나 잘 살면 된다.”

때가 되어 진급을 하고 아들들도 건강하게 커 가고 이대로만 간다면 아무 문제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 들어갈 일은 자꾸만 생겨났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받는 경찰관 월급으로 재테크는 고사하고 변변한 아파트 한 채도 쉬이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조금씩 경찰관 직권을 이용한 부정한 축재(蓄財)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형사과에 근무하면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다는 조건으로 노래방 사장들에게 뇌물을 받았고, 성인오락실이며 성매매업소 등 가리지 않으며 뒤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겼다. 처음에야 양심에 찢려 잠자리를 수없이 뒤척이기도 했으나,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점점 태연해졌다. 그렇게 경찰관의 부정한 직권이용은 시나브로 남용(濫用)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디나만 그런가? 그러지 않는 경찰 있으면 어디 나와 보라고 해.’ 그나마 아직 남아 있는 티끌만한 양심도 스스로에게 이러한 최면을 걸며 질끈 삭제해 버렸다.

그러나이 모든 행각들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청에서 하는 사무 감사에서 내가 조사대상이 된 거였다. 사실인 즉, 누군가 나의 비리를 경찰청 경리과에다가 민원으로 넣은 모양이었다. 그래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계좌로 돈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 내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준 업주들만 함구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하루하루 죽을 맛이였다. 경찰서 직원들 모두가 마치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며 조롱하는 것 같았다. 곧 내가 비리경찰이라는 소문이 경찰서 내에 파다하게 퍼질 게 분명했다. 소문이야 그렇다 치고 일단은 감사에서 증거를 확보한다면? 나는 아마 즉각 해고 되겠지? 어찌지 이를 어찌지?

사직서를 썼다가 버리고 또 썼다가 찢고, 결국 경찰복을 스스로 벗고야 말았다. 비리경찰이라는 낙인을 이마에 찍고 잘리는 것 보다는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 여겼으니까. 사직서를 내고 경찰서 정문을 걸어 나올 때, 늙고 병든 나뭇잎 하나가 내 발등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분노하며 폭발 했다. 직장도 없는데 앞으로 뭘 먹고 사느냐며 사네 못 사네, 빨리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며 못 사네 죽네. 사흘들이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울어댔다. 마침 하필이면 그 때 허리디스크가 심해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한 채로 방구석에 틀어박혀 누워있어야만 했다. 한 달, 두 달, 나는 거의 피죄죄한 꼴을 하고선 두문불출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아내는 끝내 내게 이혼을 요구했다.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 도둑질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보내. 하루도 이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겠으니 당장 헤어져.”

부부의 연을 맺어 아이까지 낳았는데 어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내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지만 죄를 진 사람은 죄 없는 사람 뜻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나는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래 미안하다, 애초에 나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면….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 전부를 아이들 맡아 키운다는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었다. 그리고 나는 옷 몇 가지 가방에 챙겨 들고 나온 것이 전부였다. 당장 가서 잠을 잘 곳도, 밥을 먹을 데도 없었다. 그렇게 뇌물과 뒷돈을 받았건만 그 돈들은 다 어디가고 주머니에 든 몇 십만 원이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다.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그런데 저 앞에서 교통의무경찰이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해왔다. 차를 세우고 차 유리문을 내리니 그가 다가와 눈썹 옆에다 거수를 하며 말했다. “속도위반을 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같은 경찰끼리는 교통위반을 해도 봐주던 암묵적 거래가 있었으므로 습관처럼 ‘직원인데…’ 막 내뱉다가 화들짝했다. 아, 그렇지. 난 이제 경찰이 아니지. 멍멍한 표정으로 경찰 신분증 대신 면허증을 내주었고 나는 속도위반 딱지를 끊겼다. 아내가 이혼장을 내밀던 순간보다 서글펐다. 어쩌다 내가 이 꼴이 되었나. 후회는 방금 전에 밟아댄 자동차 속력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질주해

오고 있었다.

이제는 김경장님도 김형사님도 아닌 ‘김씨’ 혹은 ‘어이’가 되었다. 허리 디스크가 전보다 심해진데다가 고혈압까지 왔기에 험한 일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조건 일 할 것을 찾아야 했다. 잡다한 물건을 팔러 다니고, 주유소에 취직해 기름을 넣어 주고, 저녁에는 고깃집 불판도 닦으러 다녔다. 그야말로 닦치는 대로 물 불 가리지 않으며 손을 적시고 팔을 데며 일했다. 조서를 받고 범인을 검거하던 이 손과 이 팔로…. 자존심이 박살나고 눈물이 툭툭 터져 나왔지만 그 때마다 늘 또 떠오르는 얼굴은 어머니와 자식들이었다. 누구를 탓하나 자승자박(自繩自縛)인 것을…. 고시원 쪽방 한 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으로 외치고 외쳤다.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취직할 때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었다. 별의별 일을 하며 술한 사람들을 만나며 아주 많은 것들을 보았고 경험했다. 강(強)과 약(弱)의 관계, 갑(甲)과 을(乙)의 구조, 악(惡)과 선(善)의 경계.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또렷이 깨닫게 되었다. 어릴 적 국어와 도덕시간에 배웠던 그 쉬운 말, ‘바르게 살자!’다. 강이 되더라도 바르게 강해야 하고 갑이 되더라도 바르게 갑으로 서야 한다. 결국 선은 명백히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과 더불어 사회와 더 나아가 이 모든 세상이 더없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아빠! 잘 계시죠? 저 군대 제대하면 경찰시험 보려고요.”

큰 아들 녀석은 아마도 경찰관이 될 것이다. 제 아빠의 못난 전철(前轍)을 절대 밟지 않고, 양심(良心)과 청렴(淸廉)을 굳건히 지키는 멋진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될 것임을 믿는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며칠 전 상담하고 간 남자의 전화가 왔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니 몇 백 만원이나 더 부르더라고요. 사무장님이 가장
좋으신 분 같아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